

AMERICAS TELECOM 96 FORUM 소개

출처 : ITU News 4/96

이 봉 국 / TTA 국제협력국 국제협력2부장

아메리카: 대학의 지역

AMERICAS TELECOM 96 Forum의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전부터 포럼 사무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등록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열의는 앞을 내다보고 있는 ITU 대표들의 신뢰감의 표시라고 다소 단순하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결론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일 것이다. 즉 아이디어의 공유와 이를 경청하려는 욕구가 대규모의 청중과 연설희망자들이 이 포럼에 참가하려고 열심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국가에서는 전기통신이 급진적으로 변혁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번 행사의 주관국인 브라질에서는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있는 협상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국내 전기통신의 개혁과 자유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국제환경과 관련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전기통신정책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대륙에 걸쳐 이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시책을 펼치고있다.

특히 ITU 전기통신개발국(BDT), 미주간 전기통신 위원회(CITEL), 미주국가기구(OAS)등의 주관하에 정책과 규제 및 경쟁, 보다 본질적인

자유화와 사유화, 그리고 범용접속, 상호접속요금, 면허 등의 문제를 다루는 청서(Blue Book)를 작성하였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장래가 아주 유망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선점하려고 서로 다투고있는 실정이다.

재정문제, 지역경제동맹구성, 빈자와 부자와의 불균형(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보나 지식에 접근기준으로), 신 기술의 영향 및 고객과 일반대중을 위한 적용 등과 기타 중요 현안문제들이 AMERICAS TELECOM 96 Forum에서 논의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포럼의 조직

AMERICA TELECOM 96 포럼도 TELECOM 95 포럼과 마찬가지로 2개의 정상회의로 구성된다:

전략정상회의(Strategies Summit)-“전기통신”을 주제로 기반구축에서 발전하는 정보통신 경제까지

기술정상회의(Technology Summit)-“더 넓고 더 빠르게”를 주제로 정보통신시대를 향한 과도기 기술 .

상기 두 정상회의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동시에 진행되는데, 광범한 정책 및 규제 원탁회의를 위한 6월 10일의 합동개회세션과 기술적, 법적, 규제문제는 물론 범세계 정보통신사회의 문화적 측면 등을 다룰 합동폐회세션도 있다.

이 자리에는 전기통신, 정보사회 및 AV산업체를 대표하는 약 220명의 고위급연사들이 모일 것이다.

포럼 개회

포럼은 1996년 6월 10일 리우데자네이로 교외에 있는 Riocentro Conference Centre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례에 따라 ITU사무총장 Pekka Tarjanne씨를 비롯하여 브라질 정보통신부장관 S.R. Vieira da Motta씨, 전기통신산업체 대표인 AT&T사 사장 Robert T.Allen씨등의 환영사에 이어서 포럼의 개회 세션에서 새로운 형식을 채택할 것이다.

“AMERICAS TELECOM 96 언론과 만나다”라는 제호하에 5명의 언론기자단(이중에는 TELECOM 95 포럼 개최를 성공시킨 Denis Gilhooly씨도 포함)과 다수의 장관들 및 전기통신, 정보통신과 AV산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s)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 규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포럼 종결

AMERICAS TELECOM 96 포럼의 폐회세션의장은 ITU 전기통신표준화국장이며 GII측면의 표준에 대한 ITU/ISO세미나의 제창자인 Theodor Irmer씨가 맡았다. 이 세션은 AMERICAS TELECOM 96의 토론 종결과 동시에 1997년에 개최예정인 2개의 행사 즉 ASIA TELECOM

97(Singapore, '97. 6. 9-14)과 TELECOM 97(Geneva, '97. 9. 8-14)의 도약대로 활용될 것이다.

후자의 행사는 범세계 정보통신 사회의 주요 국제적 정책 정상과 그에따른 윤리, 규제 및 법적측면, 그리고 범세계적 수준의 시행계획개발, 국가정보통신구상(NII)발표, 각종 계획의 취합 등을 포함한다.

전략정상회의

특별세션 및 개,폐회세션 이외에 전략정상회의는 다음 7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 ① 산업체 원탁회의 ② 개인투자자의 역할
- ③ 경쟁 ④ 규제능력 ⑤ 무선기술의 사업효과
- ⑥ 사회적 대상과 상업적 대상의 조정 ⑦ 전기통신에 대한 새로운 무역정책의 영향

산업체 원탁회의(세션 S.2)

이 세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황 변화에 대한 정책과 규제 문제를 반영하여, 주요산업체 그룹의 견해를 발표할 것이다. 언론인 패널리스트가 주재하며, 주요 제조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미대륙의 전략을 설명하고 해당국가의 장관들이 계획한 정책과 규칙을 비교할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역할(세션 S.3)

개인투자 및 구상(Initiatives)이 전기통신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존 기반과 새로운 통신망의 개발 뿐만아니라 관련서비스와 응용이 도입될 시기이다.

그러나 자금조달원과 재원확보방법(직접외국투자, IMF, WorldTel,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활용)의 논의 여지 및 재산, 이종의 동맹, 투자선행조건(정치 경제적 안정, 인플레이션 조정, 노

동력의 숙련도와 가용성, 경제성장 잠재성등) 등에 관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쟁(세션 S.4)

이 세션의 목적은 3개분야의 영향평가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다.

- 규제와 경쟁간의 균형유지(자유경쟁법칙이 확실히 존중되도록 규제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시장 규제의 필요성, 만약 필요하다면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외국투자자의 역할
- 북미주 “거인”과의 경쟁에 대비한 동맹(전통적인 북-남 구도보다 남-남 또는 동-서 지역 동맹 결성방안, 재정적 운용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임계밀집도의 달성방법)

규제능력 배양(세션 S.6)

당초 독점시장하에서 설립된 규제기관은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있는 중이다. 국가전기통신의 사기업화, 시장자유화, 독립된 규제기관 창설 및 새로운 법적구조 등의 문제들 모두가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것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복잡한 문제이므로 규제기술의 개발과 제도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세션은 특히 전기통신시장의 조화로운 개발의 자극제로서 매우 고무적이지만 미묘한 역할을 지지하는 규제기관이 단속(policing)기능의 포기를 원할 경우, 전통적인 규제기관에 처해질 도전에 역점을 두어 다뤄질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무선기술의 사업적 충격(세션 S.7)

오늘날 무선통신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편 휴대전화는 개인이 미래의 지능통신망을 통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게할 것이며 또한 자유성과 편의성으로 상징되는 부가적 이익과 판매자들이 재빠르게

개발하려는 이미지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선통신은 재래의 통신망으로 비경제적인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인구밀도가 희박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골을 커버하고, 유선통신망으로 많은 투자를 요하는 “중단 1Km”의 기반등이다. 두 개의 원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것인데, 첫째는 이동위성시스템(MSS)문제이고 둘째는 통신망과의 무선접속이다.

사회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의 조정(세션 S.8)

여러나라들이 전기통신 기반구축단계에서 경제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고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현재 논쟁의 핵심이 되고있는 경제적 상업적 문제들이 AMERICAS TELECOM 96에서 폭넓게 다루어질 것이며 경제개발은 이렇게 신설된 새로운 통신 정보 서비스에 의존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남아있다. 새로운 경제가 새로운 두려움을 가져 온다고 할수 있겠다. 즉 기본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가? 범용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운명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정보부작용 고속회선과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방치해둔 저속회선이 공존하는 이중궤도의 세계를 또 다시 만들고 있는가?

전기통신과 무역(세션 S.9)

AMERICAS TELECOM 96 포럼의 개막시는 WTO의 통신협상이 끝날 것이다. 이 세션은 협상결과로 나온 새로운 국제제도가 전기통신시장과 특히 시장구조, 서비스 규정 및 지역협정(MERCOSUR, OAS등)영향에 미치는 충격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다.

기술정상회의

기술정상회의는 개최 및 폐회세션을 더한 7

개의 세션(2개의 원탁회의포함)으로 구성되는데,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통신망의 발전 및 ATM기술의 도입등이 의제중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과도기의 지역 및 국가통신망(세션 T.1)

기술적 진전, 서비스의 질, 신뢰성, 대역폭과 이동성 등과 결합된 지능통신망 및 새로운 통신 기술 알고리즘과 모델의 채용 등이 모두 통신망 구조, 운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이 매우 크다.

이 세션은 특수한 지역적(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접근방법의 연구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21세기의 문턱에서 통신망 설계자와 관리자들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위성통신(세션 T.2)

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최한 지난 포럼 이후 위성통신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인구가 희박한 농촌지역에 역무제공이나 멀티미디어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제공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통신의 개발과 자유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있다.

그리고 저궤도위성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도입은 위성통신망 운용방법에 혁명을 이르고 있다.

육상이동통신(세션 T.3)

이 세션에서는 통신망계획, 육상이동업무의 표준화, 전파측위시스템의 개발, 미국에서 사용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시스템등과 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범세계(universal) 개인통신에서 무선통신의 역할같은 육상이동통신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룰 것이다.

아메리카의 전기통신관리망(TMN)표준 응용분야(세션 T5)

이 세션은 통신망 관리의 도입 및 효율적 유

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는 원탁회의이다. 전기통신이 경제를 위한 기본 산물 및 지원 도구가 되고있는 지역에서는,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 문제는 더욱 무관하게 여겨왔다.

연사들은 이러한 아이디어, 책임 및 지식의 발전에서의 표준화의 촉매역할을 논의 할 것이다.

현존 전기통신기반의 이용(세션 T.6)

케이블 TV, VOD, 온라인 서비스 및 인터넷 등은 차치하고도 전화에서 ISDN까지 응용(Applications)은 격증하고 있다. 필요 대역폭은 사용자의 기대와 멀티미디어의 개발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어떤기술이 이러한 요구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 현재의 Infrastructure로 기대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에 사용(upgrade)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Wireless Local Loop의 대안

무선기술은 통신기반의 “마지막 1Km” 즉 local loop설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나아가서 통신시설에 광범위한 접속을 보장하는 경제적수단을 제공하는 “고정”통신기반이 고도로 발달되지 않았거나 낮은 원격조밀도(teledensity)를 나타내는 나라에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고려사항은 경쟁에 이르는 개방시장의 요소이다.

광대역 및 멀티미디어 기술

광대역 및 멀티미디어 개인통신시스템은 미래의 정보고속도로를 선도하는 것이다. 만약 오늘날의 인터넷과 웹(www)이 아직도 일반대중의 참조의 주요원천으로 구성되어 미래에 응용기술로 될 것을 심사숙고할 때, 곧 도입될 서비스를 완전히 앞 지를지도 모르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현실은 아마도 판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별 세션

포럼은 금년에 두건의 특별세션을 주관할것인데 하나는, 자연재해시에 재난구조작업에 있어서 전기통신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다른 것은, 텔리비전, 쌍방향 응용기술 및 멀티미디어의 최근 발전동향을 다룬다.

비상통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남미도 천재지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따금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다량의 인명희생, 기반시설과 장비 파괴. 그리고 정정(政情)불안으로 인한 정부조직의 전복에 등의 타격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토네이도, 싸이클론 등의 태풍 및 지진 등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빈발한다. 이러한 경우 구조팀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역할은 얼마나 신속하게 구조작업에 임하느냐이며, 이때 정보소통과 정보 필요 자원동원에 필수적인 것은 말할것도 없이전기통신이다.

ITU에서는 범세계적 조정을 강화로 구조계획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현재 다른기구들과 공동으로 자연재해 발생시의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약을 마련 중이다. 이 활동은 이 사업에 열의를 가진 연합의 숭고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며 포럼의 특별세션(세션 S.5)에서 검토기로 확정하였다.

이 세션은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자, 한계획정이 곤란한 지역에서 운용을 요청받은 전문가들 및 아마추어 무선기사와 같이 막후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강단을 제공하므로써 긴급한 인도적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다.

텔리비전, 쌍방향 및 멀티미디어

디지털 음향영상(AV)응용기술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이 세션은 현재 브라질,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 하고있는 합작사업을 EBU, NHK, NBC 및 DAVIC등과 함께 모여 비교검토할 것이다.

워크샵(Workshop)

두 개의 정상회의는 각각의 전문가 소 그룹들이 특정 주제 가운데서 일정한 부문을 연구개발 것이다.

전략정상회의에서는 금년에 3개 워크샵의 주제가 인터넷, 인력자원개발 및 상호연동이며 기술정상회의의 프로그램은 라틴아메리카의 표준화(CITEL), 원격진료 및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아메리카 텔레콤96 보충자료 청구처:

Mr F. Lagrana,
Vice-President Forum,
TELECOM Secretariat
Tel.: +41 22 730 5542
Fax: +41 22 730 6444

합동 텔레콤 개발 워크샵 JOINT TELECOM DEVELOPMENT WORKSHOP

개최배경

텔레콤 행사 역사상 최초로, TELECOM '95에서 최빈국과 저소득국가의 73개 주관청에서 파견한 143명의 전기통신기술자 및 인사관리자에게 알기쉽고 특수한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네바 파견 특별연구비지급을 허가했다. 이들이 체류하는 목적은 3가지인데, 첫째는 전시회참관, 둘째는 포럼참가(특히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상회의 세션), 셋째는 인적자원

및 기술에 관한 워크숍 참가이다.

행사의 개념, 조직 및 조정에 관여한 3개 당사자들(산업체협찬자, 텔레콤사무국 및 전기통신개발국)이 향후의 텔레콤행사(특히 지역행사에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동의한 사실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다.

AMERICAS TELECOM 96 구상

그러므로 ITU는 AMERICAS TELECOM 96에 즈음하여 유사한 행사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포럼의 후원하에 중남미의 33개 ITU회원국의 주관청에서 2명씩의 장학생이 전시회 참관, 포럼 참가 및 워크숍 참가를 위해 리우데자네이로에 초청될 것이다. 워크숍은 벽지의 전기통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벽지 전기통신의 계획 및 시

행에 관여하는 고위관리자의 수요를 겨냥하여 특별히 계획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성

◆새로운 기술과 가능한 서비스/생산물의 개요, ◆저밀도 시골지역의 사례를 심층분석, ◆규제의 윤곽 및 정부, ◆사업자와 시행자간의 관계 등의 전략적쟁점을 제기, ◆원격진료 및 원격교육서비스의 계획 및 시행을 파악하는 것 등이다.

워크숍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되며, 전문가 패널과 실무작업반이 활동하는 총회세션으로 구성되어 장학생들은 이 기간동안에 전기통신개발국(BDT), TELECOM 및 협찬자의 지원을 받아 총회세션에서 제기된 특정사안들을 심혈을 기울여 연구할 것이다. 